

#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 남편 및 보육교사의 협력과 주위도움의 조절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Toddlers'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Moderating Roles of Husbands' Cooperation, Mother-Teacher Partnership, and Other Social Support

박현주(Hyeon Ju Park), 김희정(Hee Jung Kim)\*, 안선희(Sun Hee Ah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oddlers'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 moderating roles of a husbands' cooperation, mother-teacher partnership, and other social support.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48 mothers with toddlers aged 24-35 months. The method of research used was the questionnaire method. The collected data were mainly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mother's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mothers employment status, parenting costs, mother's feeling of pregnancy. Second, a moderator effect of a husbands' cooperation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oddlers'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husband's cooperation is more of an important factor in nursing children with negative emotions than other support systems.

▲주제어(Key words): 부정적 정서성(negative emotionality),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남편의 양육협력(husband's cooperation), 어머니-교사 협력(mother-teacher partnership) 주위도움(other social support), 걸음마기 아동(toddler)

## I. 서론

부모는 자녀의 출산과 자녀 양육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새롭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책임과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 지원 체계의 축소는 자녀 양육에 대한 간접 경험 및 친인척의 양육지원의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이 부부공동의 참여 및 책임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머니를 양육의 주된 책임자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N. Suchman & S. Luster, 2001)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짜증을 많이 내며,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 Park & H. Kenneth, 2008; S. Sohn, 2010). 이는 궁극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감소시키며(I. Lee, S. Choi, & H. Song, 2013), 자녀의 공격성과 적대적 행동을 증가시키게 된다(A. Huth-Bocks & H. Hughes, 2008).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만 들어지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발달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정서나 신체적 건강 나아가 가족기능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K. Crnic & M. Greenberg,

\* Director, Dongdaemun-gu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Corresponding Author: Sun Hee Ah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82-2-961-9239, E-mail: shahn@khu.ac.kr

1990; S. Park, 2004). 이와 같이,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아동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들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선행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크게 어머니의 효능감, 우울, 애착 등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과 자녀의 성별, 기질 등 자녀관련 요인, 배우자의 지지,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등 환경적 요인에 관심을 가졌다(R. Abidin, 1992; H. Lim, H. Choi, & S. Choi, 2012; S. Sohn, 2012). 그 중에서 아동의 기질은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 개인의 독특한 특성으로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또는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아동 특성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비교적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나치게 활동적이며 부정적 기분을 강하게 표현하는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쉬운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며(S. Seo & D. Lee, 2013; D. Teti & D. Gelfand, 1991), 자녀가 정서 반응의 표현이 격렬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E. Baik., M. Kang, & S. Han, 2012; J. Han, J. Kim, & Y. Cho, 2014; D. Min & H. Park, 2012). 또한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 발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보다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Coleman, A. Trent, S. Bryan, N. Rogers, & M. Nazir, 2002; S. Eom, 2014; H. You, 2013).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아동의 기질 중에서도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양육하기 까다로운 특성의 아동을 둔 어머니 모두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S. Kim and H. Choi(2007)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양육 지원을 충분히 받는다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완화된다고 보고하였

으며,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A. Brent, S. McBride, J. Schoppe, & R. Thomas, 2002). 이처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특정 요인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 규명해보고자 한다.

최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와 더불어 남편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남편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남편의 양육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남편이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어머니는 자녀양육의 책임을 남편과 공유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 남편의 양육협력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를 살펴본 J. Jung(2013)과 S. Rho(2014)에 의하면 자녀 양육에 대한 남편의 협력은 어머니로 하여금 함께 양육하고 있다는 동료의식이나 연대감을 갖게 하여 어머니의 육아불안과 양육의 부담감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며 격려하는 등 남편의 정서적 지지지는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S. Kim & Y. Seo, 2010) 부인에게 안정적인 심리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 Kim & H. Choi, 2007). 즉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남편의 협력과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감과 어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가 까다로운 특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양육의 어려움을 남편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는 등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양육의 책임을 남편과 함께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갖게 되어 양육스트레스는 줄어들 것이라 유추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남편의 양육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기관과 부모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공통된 목표를 갖게 되면서 이들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보육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C. Decker and J. Decker(2001)는 어머니가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수록 어머니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지만 어

니와 교사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중시켜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어머니가 교사와 가깝다고 느낄 때, 교사를 믿고 신뢰할 때, 교사와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길 때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 Kim, S. Moon, Y. Kim, & S. Ahn, 2013), 교사와의 협력이 어머니의 정서적인 지지를 돕고(S. Sung, 2007), 어머니가 교사와 협력을 많이 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M. Lee & H. Moon, 2008). 특히,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을 둔 어머니의 경우에 자녀의 기질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어머니가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어린이집 일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양육 상담과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양육 지식을 습득한다면, 양육스트레스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어머니-보육교사 간 협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교사의 협력과 더불어 친인척이나 이웃, 친구들과 같은 주변사람들의 지원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변사람들의 지원은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며(M. Bigras, P. LaFreniere, & J. Dumas, 1996; S. Kim & H. Choi, 2007; S. Kim & D. Yun, 2014),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Y. Moon, 2012; S. Sohn, 2010). 또한 G. Melson, G. Lad, and H. Hsu(1993)는 양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지지자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양육과제를 쉽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주변으로부터 받는 물리적, 정서적 지원은 어머니로 하여금 바람직한 부모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양육의 고충을 공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주변의 지원이 많다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주위도움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쉽게 좌절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분노를 자주 표현하는 등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남편 및 보육교사의 협력, 주위도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단편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영·유아기나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8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걸음마기는 영아기와 유아기 사이의 전이단계로 발달상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동시에 어머니는 여러 가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므로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의 선행 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편의 양육 협력과 주위도움 및 보육교사의 협력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을 완화시키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남편 및 보육교사의 협력과 주위도움은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D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세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 248명이다.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24~45세로 평균 34.72세( $SD=3.43$ )이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5명(18.2%), 전문대졸이 71명(28.6%), 대졸이 108명(43.5%), 대학원졸이 24명(9.7%)으로 대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대해서는 미취업 어머니는 119명(48.0%), 취업한 어머니는 129명(52.0%)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은 매우 기뻐다가 139명(56.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가정의 월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248)

Variable	Frequency(%)
Employment Status	unemployment 119(48.0)
	employment 129(52.0)
Age	≤30 23( 9.3)
	31~35 126(50.8)
	36~40 87(35.1)
	41~45 12( 4.8)
Education	High School 45(18.2)
	College 71(28.6)
	University 108(43.5)
	Over master degree 24( 9.7)
Monthly average child-care expense (10,000won)	≤25 23( 9.3)
	26~50 74(29.8)
	51~100 83(33.5)
	101≥ 68(27.4)
Monthly average income (10,000won)	≤250 21( 8.5)
	251~350 65(26.2)
	351~450 46(18.5)
	451~550 49(19.8)
	551≥ 67(27.0)
Feelings in pregnancy	very embarrassed 7( 2.8)
	embarrassed 24( 9.7)
	not so good 16( 6.5)
	happy 62(25.0)
	very happy 139(56.0)

입은 551만원 이상이 응답자의 27.0%로 가장 많았으며, 양육비용은 5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3.5%)가 가장 많았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 123명(49.6%), 여아 125명(50.4%), 자녀의 월령은 24~35개월 범위에서 평균 30.51개월( $SD=3.98$ )이었다.

## 2. 연구도구

###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결춤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 (ECBQ-SF; Putnam, Garstein & Rothbart, 2006)을 K. Lee(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에 해당되는 5개 하위 영역(두려움, 슬픔, 불안, 좌절, 진정성)의 3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음(1점)부터 '항상 그렇다(7점)'으로 평가하는 7점 Likert식 척도이며, 주어진 문항에 대해 아동의 행동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해당없음(NA)'에 표기하도록 하고 0점으로 처리한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224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 정서성 전체의 Cronbach's alpha는 .890이었다.

###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 Crnic and M.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유아와 어머니 사이에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빈도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각되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도구는 전체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을 고려하여 형제 관계에 대한 문항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문항을 제외한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으로 평가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9점에서 95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자녀 양육과 연관 되어 일어나는 일들을 어머니가 성가시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는 .910이었다.

### 3) 남편의 양육협력

남편의 양육협력을 측정하기 위해 R. Abidin(1992)의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의 하위척도인 Teamwork을 S. Shin(1997)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어머니가 인식하기에 남편이 부모로서 부인과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와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녀문

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부인과 얼마나 잘 합의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전체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정말 그렇다(5점)'으로 된 5점 Likert식 척도이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남편이 자녀양육에 협력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편의 양육협력의 Cronbach's alpha는 .930이었다.

#### 4) 어머니-보육교사의 협력

어머니-보육교사 간 협력을 측정하기 위해 M. Owen, A. Ware, & B. Barfoot(2000)의 The Caregiver-Partnership Scale 중 부모용 척도를 K. Kang(2013)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와 교사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있어 서로가 어느 정도로 소통하고 협력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보공유(sharing information), 정보추구(seeking information), 상호관계(adult relations)의 3개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놀이를 교사에게 말해준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 힘들어했거나 투정을 부렸다면 그 상황을 교사에게 이야기한다.', '아이의 문제에 대해 교사와 의논한다.' 등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자주 한다(5점)'으로 된 5점식 Likert식 척도이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4점에서 7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행동을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교사 협력의 Cronbach's alpha는 .894이었다.

#### 5) 주위 도움

주위 도움을 측정하기 위해 S. Shin(1997)이 개발한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지지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어머니의 주변 환경 중 자녀 문제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지, 양육과 관련한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정말 그렇다(5점)'으로 된 5점 Likert식 척도이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위 도움의 Cronbach's alpha는 .929이었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문항

곤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동학 전공자 3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18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실시를 위해 연구자가 서울시 D구에 소재한 23개 보육시설에 방문하여 원장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걸음마기 아동의 어머니에게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는 서면과 구조화된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였다. 배부한 자료 300부 중 254부가 수거되어 약 84%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 설문지 작성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자료 6부를 제외하고 248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별로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한 경우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편 및 보육교사의 협력과 주위도움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일반적 배경변인(교육수준, 연령, 취업여부, 양육비용, 임신 시 느낌)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취업여부( $t=2.168, p<.05$ ), 양육비용( $F=4.465, p<.01$ ), 임신 시 느낌( $F=6.057, p<.001$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168, p<.05$ ). 또한, 자녀의 양육비용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25만원 이하 집단의 어머니와 101만원 이상 집단의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4.465, p<.01$ ), 101만원 이상 집단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임신 시 난감하였다는 집단의 어머니와 임신 시 매우 기뻐했다는 집단의 어머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6.057, p<.001$ ), 임신 시 난감하였다는 집단의 어머니가 임신 시 매우 기뻐했다는 집단의 어머니 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2.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남편 및 보육교사의 협력, 주위도움의 조절효과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남편 및 보육교사의 협력, 주위도움이 조절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는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r=.626, p<.01$ )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남편의 양육협력( $r=-.309, p<.01$ )과 주위도움( $r=.344, p<.01$ )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다음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남편 및 보육교사의 협력, 주위도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하였고, VIF 값을 산출하여 10미만인지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들의 VIF 값이 1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단계에 독립변인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 월평균 자녀양육비, 임신 시 기분, 주위도움, 보육교사의 협력을 통제하였고, 2단계에서는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남편 및 보육교사의 협력, 주위도움을 각각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남

Table 2. Differences of Parenting Stress

(N=248)

		n	M(SD)	F/t
Education	High School	45	2.814(.659)	.396
	College	71	2.693(.518)	
	University	108	2.769(.665)	
	Over master degree	24	2.778(.665)	
Age	≤30	23	2.675(.819)	.408
	31~35	126	2.779(.616)	
	36~40	87	2.728(.595)	
	41 ≥	12	2.882(.498)	
Employment Status	unemployment	119	2.845(.660)	2.168*
	employment	129	2.675(.577)	
monthly average child-care expense (10,000won)	≤25	23	2.323(.677) <sup>a</sup>	4.465** (a<b)
	26~50	74	2.772(.627) <sup>ab</sup>	
	51~100	83	2.789(.621) <sup>ab</sup>	
	101 ≥	68	2.847(.552) <sup>b</sup>	
Feelings in pregnancy	very embarrassed	7	3.248(.770) <sup>ab</sup>	6.057*** (a>b)
	embarrassed	24	3.123(.604) <sup>a</sup>	
	not so good	16	3.056(.607) <sup>ab</sup>	
	happy	62	2.772(.613) <sup>ab</sup>	
	very happy	139	2.627(.582) <sup>b</sup>	

\*  $p < .05$ , \*\*  $p < .01$ , \*\*\*  $p < .001$

1) a, b는 *scheffe*의 사후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집단임.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N=248)

	(1)	(2)	(3)	(4)	(5)
(1) Parenting stress	1				
(2) Social support	-.344**	1			
(3) Mother-teacher partnership	.048	.220**	1		
(4) Husband's cooperation	-.309**	.410**	.219**	1	
(5) Negative emotionality	.626**	-.110	.082	-.185**	1

\*\*  $p < .01$ , \*\*\*  $p < .001$

편 및 보육교사의 협력, 주위도움 간 상호작용항을 각각 투입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먼저,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남편의 양육협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Table 4>),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남편의 양육협력과 상호작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03, p < .05$ ). 남편의 양육협력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pm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남편의 양육협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조절 효과를 <Figure 1>에 제시 하였다. <Figure 1>을 살펴보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을 때에는 남편의 양육협력이 높고 낮음에 따

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 = 1.701, ns$ ). 반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때 남편의 양육협력이 높은 어머니 보다 남편의 양육협력이 낮은 어머니가 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보였다( $t = 4.415, p < .001$ ).

다음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보육교사의 협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즉, 보육교사의 협력은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위도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협력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Husband's Coope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Stress (N=248)

	Step 1		Step 2		Step 3	
	B	$\beta$	B	$\beta$	B	$\beta$
Child-care expense	.022	.124*	.019	.104*	.017	.093*
Employment Status	1.359	.057*	.040	.002*	.092	.004
Feelings in pregnancy 1	2.500	.052	3.489	.073	4.770	.099
Feelings in pregnancy 2	8.482	.281**	7.564	.251**	7.642	.254**
Mother-teacher partnership	2.685	.135	1.744	.087	1.642	.082
Social support	.432	.335***	.095	.070	.337	.260
Negative emotionality(A)			.284	.579***	.272	.564***
Husband's cooperation(B)			.199	.145***	-.100	-.073
A X B					-.005	-.103*
R <sup>2</sup>	.221		.542		.551	
$\Delta R^2$			.321		.010	
F	11.385***		35.302***		32.508***	

Note1. Dummy variable: Employment Status(unemployment=0, employment=1)

Note2. Dummy variable: Feelings in pregnancy

Feelings in pregnancy 1(not so good): embarrassed=0, not so good=1, happy=0

Feelings in pregnancy 2(happy): embarrassed=0, not so good=0, happy=1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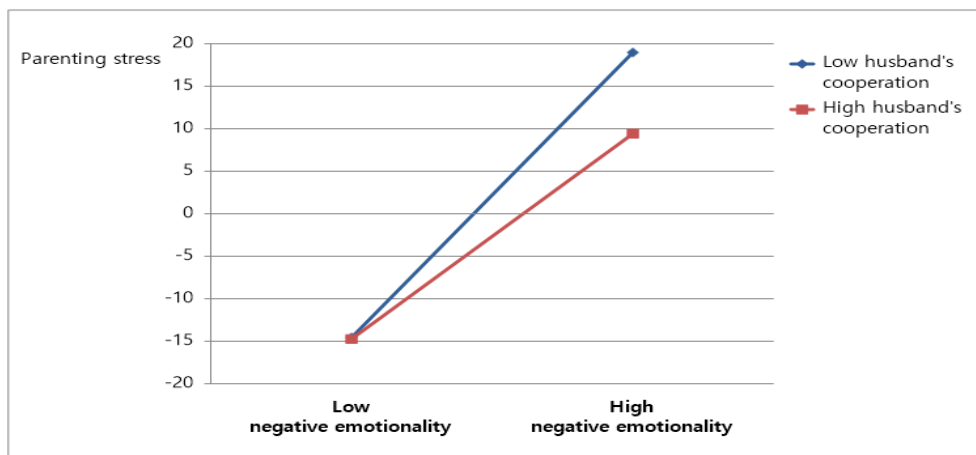


Figure 1. The Moderating Effect of Husband's Coope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Stress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Teacher Partn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Stress (N=248)

	Step 1		Step 2		Step 3	
	B	$\beta$	B	$\beta$	B	$\beta$
Child-care expense	.018	.101	.019	.104*	.019	.107*
Employment Status	1.674	.071	.040	.002*	.109	.005
Feelings in pregnancy 1	1.980	.041	3.489	.073	3.354	.070
Feelings in pregnancy 2	7.654	.254**	7.564	.251**	7.526	.250**
Husband's cooperation	.200	.246*	.095	.070	.096	.070
Social support	.318	.146**	.322	.249**	.322	.249**
Negative emotionality(A)			.272	.564**	.425	.882*
Mother-teacher partnership(B)			1.744	.087	1.846	.092*
A X B					.033	.321
R <sup>2</sup>	.221		.542		.543	
$\Delta R^2$			.321		.002	
F	11.403***		35.302***		31.455***	

Note1. Dummy variable: Employment Status(unemployment=0, employment=1)

Note2. Dummy variable: Feelings in pregnancy

Feelings in pregnancy 1(not so good): embarrassed=0, not so good=1, happy=0

Feelings in pregnancy 2(happy): embarrassed=0, not so good=0, happy=1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6.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Stress (N=248)

	Step 1		Step 2		Step 3	
	B	$\beta$	B	$\beta$	B	$\beta$
Child-care expense	.021	.116	.019	.104*	.019	.106*
Employment Status	2.196	.093	.040	.038	.116	.107
Feelings in pregnancy 1	1.459	.030	3.489	.073	3.411	.071
Feelings in pregnancy 2	7.455	.247**	7.564	.251**	7.517	.249**
Husband's cooperation	.367	.268**	.095	.070	.095	.070
Mother-teacher partnership	2.294	.115	1.744	.087	1.786	.089
Negative emotionality(A)			.272	.564**	.269	.559**
Social support(B)			.322	.249**	.319	.247**
A X B					.001	.024
R <sup>2</sup>	.221		.542		.543	
$\Delta R^2$			.321		.002	
F	11.403***		35.302***		31.455***	

Note1. Dummy variable: Employment Status(unemployment=0, employment=1)

Note2. Dummy variable: Feelings in pregnancy

Feelings in pregnancy 1(not so good): embarrassed=0, not so good=1, happy=0

Feelings in pregnancy 2(happy): embarrassed=0, not so good=0, happy=1

\*  $p < .05$ , \*\*  $p < .01$ , \*\*\*  $p < .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걸음마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남편 및 보육교사의 협력과 주위도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연

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취업여부, 양육비용, 임신 시 느낌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의 이중 부담으로 인해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들(Y. Bek, 2007; K. Kim, K. H. Doh, S. Kim, & S. Rhee, 2010)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비취업모가 자녀 양육과 가사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S. Sohn, 2010)와 비취업모가 영아로 인해 외출이 어렵고, 친구나 친지 같은 사회관계들로부터 소원해지면서 자녀 양육 상황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M. Kwon, 2011)와는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자녀양육과 가사일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가족들의 양육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어려움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녀의 양육비용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5만원 이하 집단의 어머니와 101만원 이상 집단의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만원 이상 집단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양육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한 연구(M. Kwon, 2011; Y. Lee, 2014; S. Sohn, 2012)와 일치하는 것으로 양육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정의 월평균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녀 양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들이 부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신 시 기분이 난감하였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신 시 기분이 기뻐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J. Kim and H. Kim(201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임신 시 느낌이 난감하고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한다고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임신에 대한 수용여부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외 연구(J. Ispa, M. Sable, N. Csizmadia, & A. Csizmadia, 2007)에서도 임신 시 어머니의 긍정적인 태도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정서적으로 행복함과 기쁨을 느끼는지의 여부가 출산 후 자녀 양육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임신기간 동안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다양한 부모 교

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남편 및 보육교사의 협력, 주위도움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주 울거나 칭얼대며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의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머니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결과는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와 일치한다(M. Kwon, 2011; Y. Lee, 2014; D. Min & H. Park, 2012).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한 J. Kwon, M. Chung, and S. Park(2012)의 연구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편의 양육협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양육협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한다는 본 결과는 남편의 정서적 지지가 어머니의 정서적인 안녕을 도모하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부담감을 감소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어머니의 역할부담을 줄여주고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켜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K. Kim, S. Yang, and J. Sung(2013)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주위도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주변의 도움이 많을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위도움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진다고 보고한 대다수의 연구 결과(S. Eom, 2014; S. Shin, 1997)와 일치하는 결과로 주변에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많은 어머니일수록 부모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수월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보육교사 간 협력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교사와 가깝다고 느낄 때, 교사를 믿고 신뢰할 때, 교사와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길 때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J. Kim et al., 2013; M. Lee & H. Moon, 2008; S. Sung, 2007)와는 다른 결과이다.

셋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남편 및 보육교사의 협력과 주위도움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본 결과,

남편의 양육협력은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을 때는 남편의 양육협력 수준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았으나,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이 높을 때는 남편의 양육협력 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남편의 양육협력 수준이 낮은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높은 관심과 정서적 지지는 어머니의 정서적인 안녕감을 도모하고 역할부담감을 줄여주어(S. Ahn, 2005) 자녀의 기질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본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편의 양육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육아지원정책으로 남성의 출산휴가가 도입되었지만 무급 2일, 유급 3일, 총 5일에 불과하다. 또한 육아휴직제도 역시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남성의 경우 직장복귀에 대한 불안 등으로 육아휴직비율이 2014년 기준 4.5%로 10년 전과 같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5). 이에, 남편의 양육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남성의 출산휴가 일수를 늘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2개월은 반드시 다른 부모가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럽과 일본의 경우처럼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편의 정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남편의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과 부인과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보육교사의 협력은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특성을 지닌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기질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효율적인 자녀 양육 방법이나 자녀 교육의 방향 설정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잘 알고 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인 보육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교사로부터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 방식과 교육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양육의 어려움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보육교사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나 가치, 시간적 여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의 만남의 장(場), 부모와 교사의 열의와 열정(K. Chung & J. Kyun, 2015) 등과 같은 어머니-보육교사 간의 협력을 방해하는 외적요인들로 인해 어머니는 보육교사와 피상적인 협력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육기관에서의 보육교사와 어머니 간의 관계는 부모참여라는 평가 인증제도의 한 범주로 다루어짐에 따라 형식적이며, 기관주도적인 부모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파트너십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며, 진정한 협력자, 동반자로서의 자각이 부족하다. 그러나 어머니와 보육교사는 자녀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와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보육기관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교사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가 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역시 어머니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공감 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이 시급하다.

보육교사의 협력과 더불어 주위도움 또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친인척, 친구, 이웃 등으로 받는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요인으로서(Y. Lee, 2014; K. Ryu, Y. Kim, & Y. Song, 2009; W. Yu, J. Choi, & S. Lee, 1998)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물질적 도움 및 정서적 지지가 제공된다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의 도움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완충하기에는 영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된 요즘, 젊은 부모들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양육의 고충을 토로함으로써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이에 친인척과 이웃, 친구 등 주변사람의 지원과 더불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을 둔 어머니들 간에 육아 경험,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양육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양육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특성, 환경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단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아동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 간의 상호관련 속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남편의 양육협력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남편의 협력이 다른

지원체계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세 자녀를 둔 어머니로 한정하여 표집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종일 양육하는 경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대상을 다문화 가정, 이혼가정, 재혼가정 등의 주 양육자로 한정하여 그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어머니의 내적 요인(예, 자기효능감, 자아인식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외에도 다양한 기질 특성 요인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낸 남편의 양육협력 외에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REFERENCES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Ahn, S. H. (2005). The impact of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9*(4), 311-327.

Baik, E. J., Kang, M. J., & Han, S. A. (2012). Difficulties in parenting influenced by the mother's characteristics and child's tempera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1), 65-78.

Bek, Y. S. (2007). *The effect stress and guilt of mothers in raising children have in their attitude of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Bigras, M.,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parent and child scales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2), 167-178.

Brent A. McBride, Sarah J. S., & Thomas R. R. (2002).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98 - 1011.

Chung, K. S., & Kyun, J. Y. (2015). The perception and expectation about the realities and formations of partnership between the hom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al setting of parents and teachers: foundation of warm educational communitie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1*(3), 103-127.

Cochran, M. M., & Brassard, J. A. (1979).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Coleman, P. K., Trent, A., Bryan, S., King, B., Rogers, N., & Nazir, M. (2002). Parenting behavior, mother's self efficacy, belief, and toddler performance on the bayley scale of infant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2), 123-140.

Crnic, K. L.,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Decker, C. A., & Decker, J. R. (2001).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Eom, S. J. (2014). The effect of infant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The mediating effects of paternal parenting involvement.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7*, 29-59.

Han, J. A., Kim, J. H., & Cho, Y. J. (2014). Effects of preschool children's gender, age, temperament,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maternal depression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8*(4), 525-544.

Ispa, J. M., Sable, M. R., Csizmadia, N. P., & Csizmadia, A. (2007). Pregnancy acceptance, parent-ing stress, and toddler attachment in low-income black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1), 1-13.

Jung, J. Y. (2013). The systematic analysis on the casual model between husband'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working mother's self-esteem mediated by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7*(1), 106-126.

Kang, K. H. (2013). *The effect of parent-infant attachment, parent-teacher partnership, and teacher-infant relationship on infants' adaption in child care cen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Kim, J. K., & Kim, H. R. (2012). The effects of a mother's

- characteristics and self-awareness upon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2), 129-144.
- Kim, J. M., Moon, S. M., Kim, Y. K., & Ahn, S. H. (2013).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and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on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5), 79-98.
- Kim, K. H., Yang, S. Y., & Sung, J. H. (2013). The effects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1), 87-103.
- Kim, K. W., Doh, H. S., Kim, S. W., & Rhee, S. 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loyment, maternal job characteristics,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5), 101-113.
- Kim, S. R., & Yun, D. H. (2014).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8, 41-62.
- Kim, S. Y., & Choi, H. Y. (2007).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y their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ir husbands' support on parent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8), 1-11.
- Kim, S. Y., & Seo, Y. S. (2010).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perceived marit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testing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stress and perceived marit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2), 189-213.
- Kwon, J. Y., Chung, M. R., & Park, S. K. (2012). Variables related to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toddl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3), 143-160.
- Kwon, M. K. (2011).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2), 19-41.
- Lee, I. H., Choi, S. Y., & Song, H. W.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1), 69-81.
- Lee, K. Y. (2007). *The relation between teacher's child-rearing and educational beliefs, efficacy of child care and teaching, job stress, infant temperament and teacher-infants inter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J., & Moon, H. J. (2008). Teacher-mother communication: Its effect on satisfaction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n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1), 1-14.
- Lee, Y. J. (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temperament of child,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efficacy in employed moth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5, 117-136.
- Lim, H. J., Choi, H. J., & Choi, S. N. (2012).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couple's characteristics, and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upon infant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2), 91-109.
- Melson, G. F., Ladd, G. W., & Hsu, H. (1993). Maternal support network, maternal cognitions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5), 1401-1417.
- Min, D. O., & Park, H. W. (2012).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and parenting stress in terms of interaction effects of maternal fact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3), 51-58.
- Moon, Y. K. (2012).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nfa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3), 165-177.
- Owen, M. T., Ware, A. M., & Barfoot, B. (2000). Caregiver-mother partnership behavior and the quality of cariver-child and mother-child interac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3), 413-428.
- Park, S. S. (2004).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ju University, Chongju, Korea
- Park, S. Y., & Kenneth, H. R. (2008). Toddler's gender and temperament by maternal stress as predictor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2), 109-124.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9, 386-401.

- Rho, S. H. (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athers' self-efficacy o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ing involvement.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4*(3), 45-59.
- Ryu, K. J., Kim, Y. J., & Song, Y. S. (2009). Parenting stress with her infant and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of mother who commit their infants to child-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5*(1), 1-23.
- Seo, S. W., & Lee, D. K. (2013). The effects of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couple conflict and infants' emotional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5), 279-298.
- Shin, S. J. (1997).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ohn, S. M. (2010).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and family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4*(4), 267-288.
- Sohn, S. M. (2012).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31-357.
- Suchman, N. E., & Luster, S. S. (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 285-315.
- Sung, S. Y. (2007). Parent-teacher communi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6*(1), 383-400.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You, H. S. (2013).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other's attachment,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temperament, and children's attach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3), 49-70.
- Yu, W. Y., Choi, J. N., & Lee, S. (1998).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infant's mothe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1), 51-61.

- Received: September 15. 2016
- Revised: November 23. 2016
- Accepted: December 23. 2016